

정승회선교사의 태국선교 이야기

I. 서론 - 선교지·태국의 상황

1. 태국의 현 정치적 상황과 미래

왕권의 약화와 새로운 질서 확립에 따른 혼란

2. 태국 선교 상황

태국의 기독교는 천주교가 1555년에 개신교가 1828년에 전래되어 455년 또는 182년이 되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하여 1%정도이다

개신교의 처음 복음의 전래는 1828년 8월23일 구출라프(독일), 톨린(영국)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구출라프는 1832년 중국인 분띠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장로교 선교사는 1840년에 입국하여 19년만에 첫 수세자를 획득하였다.

2.1 기독교 단체별 상황

태국 정부는 5개의 기독교 단체를 허락하고 있는데 3개(천주교,태국기독교총회,태국복음주의연맹)의 대 단체와 2개(남침례교연맹,안식교)의 소 단체가 있다.

2010년 현재 태국 내 교회 수는 2,000여 교회로 선교사는 1,125명에 이르고 있다.

2.1.1 태국기독교총회 The Church of Christ in Thailand(CCT) 75 또는 52 년

1828년 서양선교사의 입국으로 태동하였다. 1831년 이후에는 미국의 장로교회, 침례교회, 회중교회의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활동하여 1934년(75년전) 7개 노회 9,421명의 교인으로 **싸이암 기독교회**를 조직하였고, 1943년 **태국 기독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안식교, 미국남침례교, 태국복음주의 계열은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다. 1951년 사도교회가, 1903년 영국교회가 가입하였다.

그러나 **1957년(22년후)**에는 미국장로교 선교부가 모든 권한을 총회에게 이양하였고 1962년에는 다른 선교부도 총회로 이양하였다. 2010년 현재 19개처 노회에 844개처교회 170,218명의 교인을 보유하고 있다.

5개처(맥길바리신학교,방콕신학원)의 신학교육기관과 2개의 대학교(파압대학교,태국기독교대학교), 8개의 병원, 25개의 교육기관, 32개의 외국선교단체에 116명의 선교사를 보유하고 있다. 장로교회로 운영되지는 않으나 장로교회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는 1956년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파송 선교사인 최찬영,김순일목사를 시작으로 관계를 맺고 1971년에는 KIM 선교회, 1989년 이후에 현재의 합동총회 파송 선교사가 WPM(신홍식), KGAM(양덕훈) 선교부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통합총회(조준형) 선교사와 기성총회(김용식)선교사 등 30여명이 소속되어 활동 중에 있다.

2.1.2. 태국복음주의연맹 The Evangelical Fellowship of Thailand(EFT) 40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많은 선교 단체들이 태국에 들어와 활동 중이었다. 이들은 1956년 태국기독교총회 조직 시에도 참여하지 않고 자유스런 선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관심과

단체간의 연합 사업을 위하여 1969년(40년전) 9월9일 태국복음주의연맹(The Evangelical Fellowship of Thailand)이라는 명칭으로 종교성에 기독교단체로 등록하여 천주교, 태국기독교총회에 이어 3번째 기독교 단체가 되었다. 조직 당시에는 6개 외국선교 단체뿐이었으나 1970년에 9개처의 교회가 입회하였고 1971년에 2개의 국내 선교 단체가 가입하였다.

현재 1400개처의 교회에 156,455명의 교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170개 교회와 선교단체가 소속되어 있고 7개의 신학교육기관이 속해 있다. 822명의 선교사 쿼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1980년 이후에 태국에 설립된 외국 선교 단체는 선교사 비자 쿼터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어서 다른 선교단체를 의지하여야만 한다.

한국교회는 1979년 예정합동총회가 정승회선교사를 태국에 파송하면서 EFT와의 관계를 수립하였고 한국선교사로서는 최초의 완벽한 선교단체를 조직하게 되었다. 현재에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 단체에 소속되어있던지 주변에 있다.

2.1.3 태국남침례교연맹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37년

1949년 미국남침례교해외선교부 (Foreign Mission Board of Southern Baptist Church)가 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여 1971년(37년됨) 태국침례교연맹을 조직하고 1977년에 종교성에 등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선교사는 42명 1개처의 신학교육기관 1개처의 병원 및 1개처의 나환자병원과 학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92개처 교회에 10,079명의 교인 8개처의 신학교와 병원, 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2.2 지역별 기독교 배경

2.2.1 북부지역

북부지역선교는 장로교 선교사인 맥길바리(McGilvary) 선교사가 1867년 치앙마이(Chiangmai)에 선교 본부를 설치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되어 오늘의 태국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태국기독교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 태국기독교총회(CCT)의 신학교로 태국 최고 수준의 신학교인 McGilvary College of Theology, Payap University를 비롯하여 많은 군소 신학교육기관(훈련원)이 있고 주태 한국 장로교선교부가 설립한 석사과정의 치앙라이 장로교신학교가 있고 교회들은 주로 구 장로교 계열이나 신앙과 신학이 자유주의이다.

이 지역엔 버마에서 건너온 30여 부족(80만명)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1950년도 초부터 New Tribes Mission,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 Thailand Baptist Missionary Fellowship, The Church of Christ, USA, 같은 선교 단체들이 활동하여 산지족들을 거의 복음화 시켰으며 바로 아래 지역(수코타이,딱,깜 팽펫)은 Worldwide Evangelization Crusade 선교단체가 활동하여 소 그룹 교회를 형성하였다.

한국인 선교사들이 방콕 다음으로 많이 거주하며 주로 산족들을 중심으로 일한다.

2.2.2 북동부지역

1929년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던 C&MA(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 선교사들이 태국 북동부 지역에 입국하여 선교를 시작한 이래 콘깬을 중심으로 C&MA가 개척한 교회들로 The Gospel Church 총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예하에 The Northeast Bible College를 설립하여 교역자 양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인들이 선교사의 주권을 강제로 이양 받은 후 많은 후유증을 보이고 있다.

한편 북부와 북동부 중간 지역에는 1946년부터 선교를 시작한 Finish Free Foreign Mission에 의하여 러이, 펫차분, 롬쌍 등에 교회를 개척하였다.

한국인 선교사들이 컨겐을 중심으로 3번째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2.2.3 중부지역

1951년 중국에서 철수한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 선교사들이 태국에 입국하여 북부지역의 산지족들에게 전도를 시작한 후 1953년 의료팀이 중부지방의 마노롬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전개한 결과 중부지방을 복음화 시켜 Associated Churches in Thailand 를 조직하고 성장하고 있다.

2.2.4 동부지역

1949년 Foreign Mission Board of Southern Baptist Church 선교부가 전도 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교회들을 설립하였다.

2.2.5 남부지역

방콕 근교의 남부 지역은 1960년 미국장로교선교부 선교사인 맥길바리선교사가 태국에 입국한 후 펫부리에 선교 본부를 정하고 전도활동을 전개하면서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남부 중부지역은 스칸디나비아 선교사들이 1951년부터 활동하여 오순절교단을 조직하고 운영 중이다.

남부 국경지역은 OMF 선교사가 중국에 있을 때 모슬림 사역을 하던 선교사가 말레이시아 4개도의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설립하였다.

2.2.6 방콕지역

방콕 내에는 개신교 교회가 200개처 천주교회가 55개처로 태국 전 교회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교파들도 장로교, 침례교, 오순절 교회와 태국 및 중국계 교회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

신학교육기관도 Bangkok Bible Seminary(방콕성서신학교), Bangkok Institute of Theology(방콕신학원), Thailand Baptist Theological Seminary(태국침례교신학교)을 비롯하여 다수의 군소 신학교들이 있다.

한국인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면 일하고 있다.

2.3 태국 교회 상황

2.3.1 교회의 영세성

2.3.2 교회의 미 조직화(정치 및 행정적)

2.3.3 교역자들의 지도력 부재(훈련원 수준)

2.3.4 교인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

2.3.5 열성은 있으나 조직신학은 부재

2.4 태국 신학교 상황

2.4.1 신학교 지망학생의 절대 부족과 소명이 없는 학생들의 지원

2.4.2 교수의 수준 미달과 수적 부족

2.4.3 훈련원 수준의 신학교육 기관과 학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신학교육(정부인가 없다)

2.4.4 목회 훈련의 부재

2.5 태국 정부의 종교 정책

1980년도부터 태국정부는 5개 종교 단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 육성하기 시작하면서 선교사 쿼타를 제한하고 선교사들이 현지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역을 인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면서 선교사 쿼타를 년 10%씩 감축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이 조치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2.5.1 종교자유 정책

푸라롱콘 왕에 의하여 1878년 종교의 자유(The Proclamation of King Chulalongkorn's Edict of Religious Toleration)가 선포된 이래 현재 태국은 1200개의 선교사 비자를 허락하고 선교활동을 지원하기에 자유스러운 선교지이다.

2.5.2 종교육성 정책

선교의 자유 뿐 아니라 5개 종교(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뿌라만-힌두교, 싯크교)를 육성하는 일을 전개하고 있는데 종교부지, 육성비 제공 등 제반 사역을 지원하고 있다.

2.5.3 선교제한 정책

그러나 선교활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제한도 있다. 1980년도에 제정한 새로운 종교정책은 선교사 쿼타 고정, 선교사 쿼타를 1981년부터 년 10% 감축, 선교사들의 사역을 책임 질 현지인 육성과 사역 인계 등 활동을 제한하였으며 자유로운 선교활동은 보장하나 종교활동으로 국민의 화합을 방해해서는 않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 한국교회 선교사 현황

1950 년대에 2 가정, 1960 년대에 1 가정, 1970 년대에 4 가정, 1980 년대에 31 가정, 1990 년대에 154 가정, 2000 년대에 171 가정으로 약 338-380 가정이 파송되어 왔는데 다음과 같다.

1950 년대 2 가정 최찬영(56/5), 김순일(56/11)

1960 년대 1 가정 송예근의료선교사(64)

1970 년대 4 가정 신흥식(71), 김정웅(76), 정승희(79), (임세중)

1980 년대 31 가정 윤수길(80), 양병화(82), 김성곤(84), 박선진(85), 조준형, 김용식, 강대홍(87), 정석천, 이승환(88), 송용자, 장병조, 박윤식, 김학영(89)

1990 년대 154 가정

2000 년대 172 가정

II. 본론 - 선교사와 후원교회에 관계된 이슈들

1. 선교사 문제

1.1 선교사의 소명 문제

선교사의 대량 파송은 소명이 없는 선교사를 양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선교 사역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선교사가 된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된다. 그러나 선교사 소명이 없는 사람은 선교사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 할 수 없게 된다.

1.2 선교사의 문화 적응의 문제

선교사의 Incarnation적인 삶이 없이는 진정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삶은 선교 현지의 문화 적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지화 작업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교 사역을 전개할 수 있는데 이는 공중누각을 건립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선교사의 사역이 역사에 남겨지지 않게 된다.

1.3 선교사의 능력과 사역의 문제

선교사들은 대부분 담임목사 경험이 없이 선교지로 파송 받기에 현지 교회 개척 사역에 종사하게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선교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하여는 그 만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선교사들이 상당수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한인 선교사들의 사역이 돈으로 하는 선교가 팽대해 있고, 중복적인 사역이 많으며, 현지에 필요한 선교 보다는 자신이나 한국교회가 원하는 선교를 전개하기도 하고, 협력 선교가 없는 독자적인 사역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사역의 경향을 띄고 있다.

2. 파송단체 및 후원교회 문제

2.1 파송 단체의 문제

파송 단체들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임무를 마치는 것 같은 경향을 띄고 있다. 따라서 선교사 자신이 알아서 선교 길을 개척해 나가는 상황이다. 선교사 지도나 통제도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다.

2.2 후원교회의 문제

선교사는 후원교회의 후원은 물론 통제도 필요하나 이런 장치는 전혀 없어서 선교사가 후원교회를 오도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후원교회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무조건 선교사의 말만 믿는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가 선교를 그릇 치는 수도 간혹 있다.

III. 결론

선교는 선교 본부와 선교 현장이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선교 현장을 잘 모르기에 한국 본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선교 현장을 생각할 여유도 이해도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본부와 현장이 별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 할 길은 요원한 중에 있다. 언제 선교 현장 중심의 선교가 될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REFERENCE BOOKS

- 김순일 Kim, Samuel. I 홀리신학교 선교학 박사 논문
1980 The Unfinished Mission In Thailand, Seoul: East-West Center for Missions Research.
- Smith, Alexander Garnett 홀리신학교 선교학 박사 논문
1982 Siamese Glod (A History of Church Growth in Thailand), Bangkok : Kanok Bannasan (OMF Publishers)
- 신흥식 Shin, Hong Shik
1981 Principles of Church Planting as Illustrated in Thai Theravana Buddhist Context
Th.D. dissertation, Dallas Theological Seminary
- 김정웅 Kim, Jung Woong
1985 Third World Mission-Church Relationship: A Korean-Thai Model, Chicago : D. Miss Dissertation,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 정승희 Chung, Seung Hoi
1992 A Study on Church Planting Strategy of Korean Missions in Thailand, California: D. Min. Dissertation,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2007 A History and Works of Korean Missionaries in Thailand, California: Th.D. Dissertation, Wyclif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 윤수길 Yoon, Soo Gil
1994 Discipleship Ministry as Power Encounter in Thailand, Chicago : D. Miss. Dissertation,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 김순일 Kim, Samuel. I
1982 밀림에 세운 십자가(The Cross of Jungle), Seoul : Messiah Publishers, Tourn Mission Center
- 바울선교회 Paul Mission of Korea
1983 한국선교사들의 현장(Field of Korean Missionaries), Seoul : Paul Mission of Korea Publishers
- 정승희 Chung, Chana Seung Hoi
1995 태국인의 위험과(The Dangerous of Thai) Seoul; The Christian Times
2003 태국선교 길잡이(A Guide to Thai Missions) Seoul: GAPCK Publishers
- 최찬영 Choi, Chan Young
1995 최찬영 이야기(The Story of Choi Chan Young) Seoul: Joy Mission Publisher

정승회(차나정)선교사 소개

전북 완주 출생, 만 64 세, 목사안수 41 년째,

학력

충신대 신학대학 및 신대원 (63 회)

원광대 농학과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에큐메니칼연구원)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목회학박사, D.Min.)

위크립대학교 및 신학대학원 Wyclif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신학박사, Th.D.)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Global Mission Society)파송 태국주재선교사 32 년

주태국 한국장로교선교부 (The Korea Presbyterian Mission in Thailand) 설립 및 대표

태국장로교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ailand) 총회장

치앙라이 장로교신학교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설립자 및 운영위원장

Wyclif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태국 분교장 (목회학박사과정)

과거

전북노회 직영 전주고등성경학교 교무,

전북노회 주일학교연합회 회장,

육군 군목 (대위전역),

이리북일교회 위임목사 3 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해외합동총회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Korean Presbyterian Overseas Church) 총회장

저서

"태국인의 위험과" (기독신문사)

"태국선교 길잡이" (총회출판국)

태국어 신학교재 다수 및 박사 논문 2 편

www.kpmthai.org kpmthai@nate.com

Seung Hoi Chung

P.O.Box 26 Ramintra Bangkok 10220, Thailand

Telephone (66) 081-926-7876, 02-522-2228, Fax. 02-522-2237

